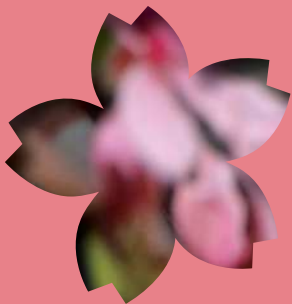


# 건강가사 건강꾸람 을느니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 VOL.181

2021. March | April





500년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  
**원주 강원감영**(원주 8경 중 2경)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이다. 조선왕조는 1395년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라 하고, 강원도의 수부를 원주로 정하여 강원감영을 설치하였다. 강원감영의 건물들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634년 원주목사 이배원이 재건하기 시작한 후, 여러 목사와 관찰사들이 계속 건설하였다. 강원감영은 선화당을 비롯하여 포정루, 보선고, 내아, 비장청, 호적고 등 40여 동에 달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 간 강원도 역사창조의 중심역할을 하였으나, 1895년 조선 8도 제도를 23부 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896년 이후 강원감영 건물은 원주 진위대 본부로 사용하였고, 1907년 진위대가 해산된 후에는 원주군청으로 사용되었다. 40여동의 화려한 건물로 이루어졌던 강원감영은 1895년 이후 대부분의 건물들은 없어지고 선화당을 비롯하여 포정루, 내아 등 몇 동의 건물만 남게 되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500년 강원도의 수부로서 강원도를 관할하였던 귀중한 문화 유산인 강원감영을 복원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선화당, 포정루, 중삼문, 내삼문, 내아, 행각 등 강원감영의 일부를 복원하였다.





## 건강한 오늘

04

### 닥터 톡톡

유방암 예방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자

08

### 위로의 약방

피임약 복용,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까?

10

### HIRA 빅데이터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12

### 건강 인문학

끈끈한 가족애, 유방암 극복을 위한 첫걸음

14

### 평가정보

2021년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당신 덕분에

17

### 고마운 레시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0

### 빛나는 그대

최적의 진료와 최선의 치료로 환자의 내일을 변화시키다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광진호 과장

24

### 반가운 당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훈 대표위원과  
유튜브 '의사친' 정준우 원장의 만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들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표위원을 만나다

28

### 함께의 가치

차근한 과정 속에 묻어나는 여유, 워킹맘의 힐링데이  
수제도마 체험

32

### 열정 36.5°C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심사평가원의 뿌리  
자원평가실

## 함께하는 내일

36

### 마음 연구소

인간관계로 쌓이는 직장 스트레스 완전정복

38

### 미디어 속 건강

서서히 목소리를 점령하는 성대결절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보는 성대결절

40

### #나누는 건강

건강을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나만의 운동법은?

42

### HIRA NEWS

임직원 헌혈 주간행사 실시 등

## 정책 이야기 BOOK in BOOK

### 의약계 안내

- 02 ①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04 ②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절차 개선 시행
- 06 ③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0년 하반기, 12차)
- 08 ④ 평가지표정보 한 눈에 보는 의료 질 평가정보뱅크
- 11 ⑤ 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공개
- 14 ⑥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 VOL.181

2021. March | April

발행일	2021년 4월 26일 통권 제 181호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	김선민
편집인	김한정
기획·디자인·사진	(주)이팝
인쇄	태백종합인쇄공사
고객센터	1644-2000
ISSN	2384-4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판 구독 [www.hirasabo.or.kr](http://www.hirasabo.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http://blog.naver.com/ok_hir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okyeshira](http://www.youtube.com/okyeshira)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사이트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책자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제호는 말싸미815 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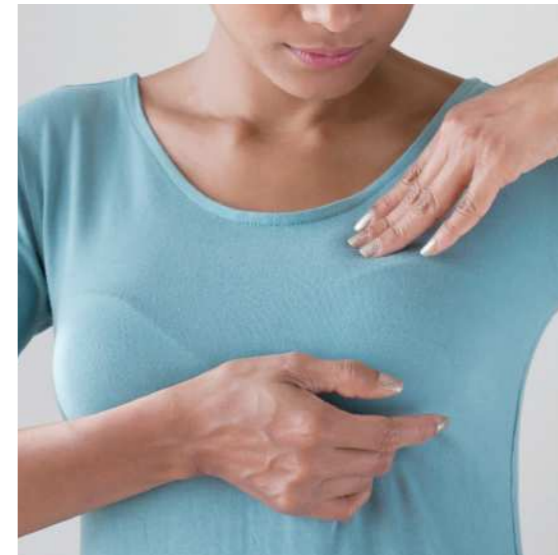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3·4월호와 관련된 모든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유방암 예방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자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1위는 유방암, 2위는 갑상선암이다.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다 최근 추이가 꺾인 갑상선암과 달리,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암이다. 여성 100명당 4명꼴로 진단된다.  
매년 새로운 환자가 약 2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유방암 예방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글. 민선영(경희대학교병원 유방외과 교수)



## 유방암의 고위험 요소에 주목하라

유방암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식습관·음주·호르몬 등 환경적 요인이 30~50%, 유전적 요인이 5~10%, 알 수 없는 원인이 30% 이상이다. 이 중 환경적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대부분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에스트로겐은 자궁, 난소 등 여성의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방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통해 평생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에 따라 유방암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30세 이후 첫 출산 혹은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유방암의 고위험 요소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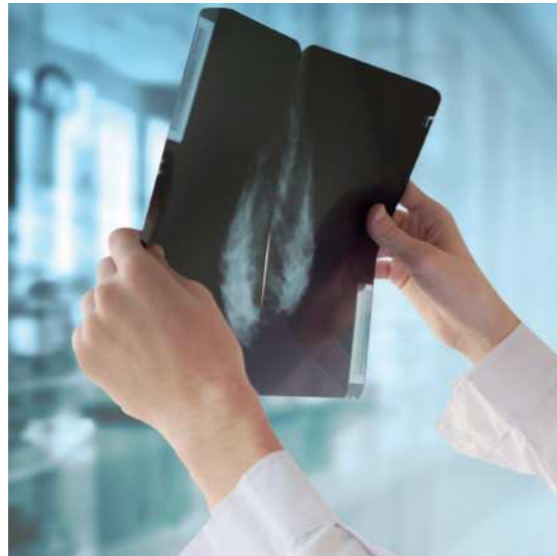
최근에는 건강검진 수검이 활발해지면서 조기 유방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그러므로 유방암의 증상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유방암의 시그널, '멍울, 유두분비물, 그리고 유방 및 겨드랑이의 형태 변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이다. 일반적인 멍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단단하고 울퉁불퉁하며, 그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비교적 유방 안에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유방 조직이 조밀한 경우가 많아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항상 자가검진을 습관화하여 단단한 부위와 부드러운 부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해야, 변화가 생겼을 때 발견하기 쉽다.

눈여겨볼 또 다른 증상은 유두분비물이다.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으로, 한쪽 유방이나 유관에서 진한 갈색 혹은 피가 섞인 듯한 빨간 분비물이 나오면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약물이나 생활습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의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방 및 겨드랑이의 형태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유방암의 위치나 진행 상태에 따라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이 달라지거나 피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방은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데, 평소와 다르게 한쪽 유방의 크기가 커져 처짐의 정도가 차이나거나, 단단한 정도가 달라진다면 유방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유방암은 가장 먼저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는데, 유방의 변화보다 겨드랑이의 변화를 먼저 발견하여 병원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겨드랑이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한쪽 팔만 붓는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다. 또 유방의 피부 일부에 부종이 생기거나,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 젖꼭지나 유두 습진과 같은 병변이 생기거나 피부 일부가 움푹 파이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유방에 통증과 열감, 붉어짐이 동반되는 염증이 생겨도 유방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검사와 치료로 극복하는 유방암**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 촬영술이다. 유방을 검사대에 올리고 충분히 압박하여 유방 조직을 고르게 펼쳐 영상을 촬영한다. 이 검사 방법은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 유방 내부 조직의 구성과 병변 여부, 피부와 겨드랑이 쪽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검사 시 유방을 압박하는 점 때문에 상당한 불편감이 동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유방 촬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암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유방 촬영술에 비해 통증이 없고, 실시간으로 유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작은 덩어리라도 하더라도 크기와 형태, 암의 가능성 등을 판정할 수 있으며, 초음파에서 확인된 이상 부위에 대해 별도의 수술 없이 바로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검사다. 하지만, 유방 초음파 검사 단독으로는 유방의 이상을 모두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유방 촬영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법이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유방암은 다양한 성격과 예후를 갖는 암의 크기, 림프절 전이 상태 등에 따라 여러 분야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유방암 수술 치료법에는 유방 전체 조직과 유두 및 피부까지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과 병이 있는 부위 일부만 절제하는 유방 부분절제술이 있다. 유방 절제술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치료 후 신체 형태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미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동시에, 본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미용적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한다.

수술 후에는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술 이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전이암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겼거나, 고령 혹은 건강 악화로 인해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항암 화학요법, 일명 항암 치료는 암의 병기와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 수술 후 4주 차에 건강을 회복하여 시작한다. 이때, 약제나 치료 간격, 치료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경 전 여성은 항암제로 인해 무월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영구적 불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임기 환자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한 유방암 예방**

유방암 예방은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또한 채소와 과일의 적극적인 섭취와 운동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잦은 금식이나 과식, 폭식 등 불규칙한 식사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비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식품군(곡류,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신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과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적극 섭취를 권한다.

**Tip. 가장 중요한 유방암 예방법, 아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체중 조절, 금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



정확한 자가 검진 방법을 숙지해 실천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여 이상 발견 시 지체하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한다.



# 피임약 복용 유방암 발병률을 높일까?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 불순 개선 등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오랜 기간 논쟁거리로 다뤄졌다. 피임약의 여성호르몬 성분인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임약은 유방암에 정말 치명적일까?

글: 박해린(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유방외과 교수)



## 경구 피임약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최근 광고,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과거의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150mg으로 상당히 높았던 반면, 신세대 경구 피임약은 그 함량이 15~35mg으로 소량이라 유방암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복용하라고 권유하는 듯하다. 또한, 에스트로겐 없이 프로게스틴만 들어 있는 경구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틴을 방출하는 자궁 내 피임장치(IUD) 등도 유방암 위험성과 관련이 적다고 낙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발표된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결코 안심할 사항이 아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이 덴마크에 거주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 180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신세대 경구 피임약이 1990년대 초 유방암 위험을 이유로 퇴출된 구세대 경구 피임약 못지않게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세대 경구 피임약을 현재 복용 중이거나 최근 복용하기 시작한 여성은 한번도 복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20% 정도 더 높았다. 또한, 복용 기간이 1년 이내인 여성들보다 10년 이상 복용자들의 발생 위험이 9%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복용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용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게 지속되었다. 에스트로겐 없이 프로게스틴만 들어



있는 경구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틴을 방출하는 자궁 내 피임장치(IUD)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임제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1%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10만 명당 13명이 추가로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지난 한 해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7,690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발표된 여러 전향적 연구에서 저용량 경구 피임약도 유방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되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 낮추는 장점도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경구 피임약이 자궁내막암 발병률을 57%나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또 다른 여러 연구에 의하면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난소암이나 나팔관암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 연구에서 경구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률을 증가시키지만 난소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등의 발병률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4만6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3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이상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비복용자 그룹보다 전체 암 발병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쉽게 말하면 유방암 발병률은 증가시키지만, 다른 암의 발병률은 줄어들어 결국은 전체 암 발병률에서는 약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간혹 혈전증을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소인을 갖지 않은 여성에게는 경구 피임약이 대체로 유익하다는 결론이다.

## 지나친 걱정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

2019년 한 연구에서 신세대 피임약을 복용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위험성을 줄이는 생활습관 팁을 몇 가지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는 비만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만은

유방암 위험률을 43% 증가시키므로 피임약 복용 여성은 무엇보다 체중 감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병률, 나아가 사망률 또한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도 이롭지만은 않다. 약과 독은 아슬아슬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독을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지만,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약이 된다. 경구 피임약이 꼭 필요한 여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복용법을 숙지해 복용하기를 권한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경구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률을 특별히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Tip. 올바른 피임약 복용법



1. 의사와 상의 후 복용



2. 복용법을 정확하게 준수



3. 다음과 같은 경우 복용 주의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흡연자, 유방암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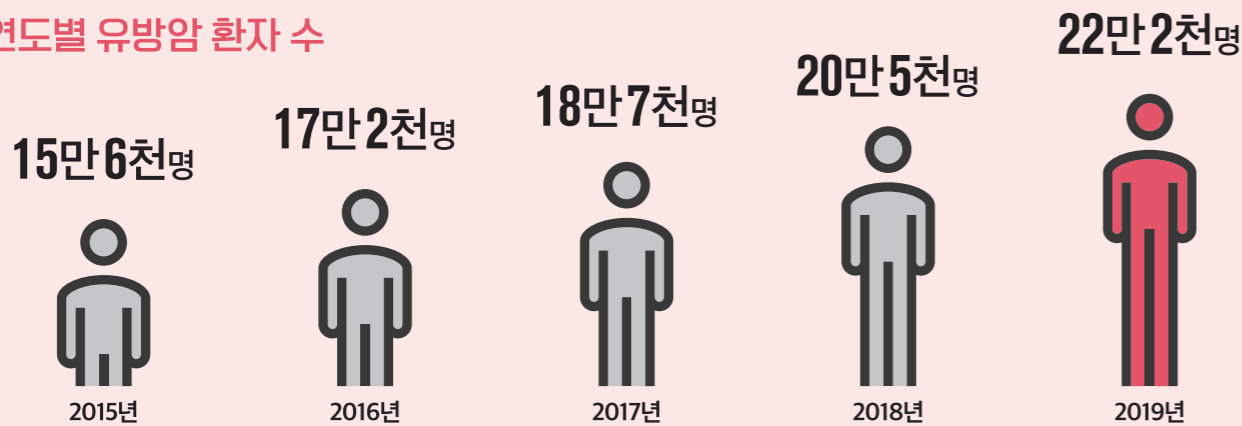
- Lino Pup, Giovanni CP: Breast cancer risk of hormonal contraception: counseling considering new evidence. Critical reviews in oncology/hematology 137(2019)123-130
- Mørch, LS Skovlund CW et al.: Contemporary Hormonal Contraception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N Engl J Med 2017; 377:2228-2239

#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인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 질환인 유방암. 최근 그 증가세가 확산되어 국내 유방암 환자는 2018년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1.5배 증가했다. 그런데 여성암이라 통칭하는 이 유방암은 남성에게도 발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유방암과 관련된 최근 통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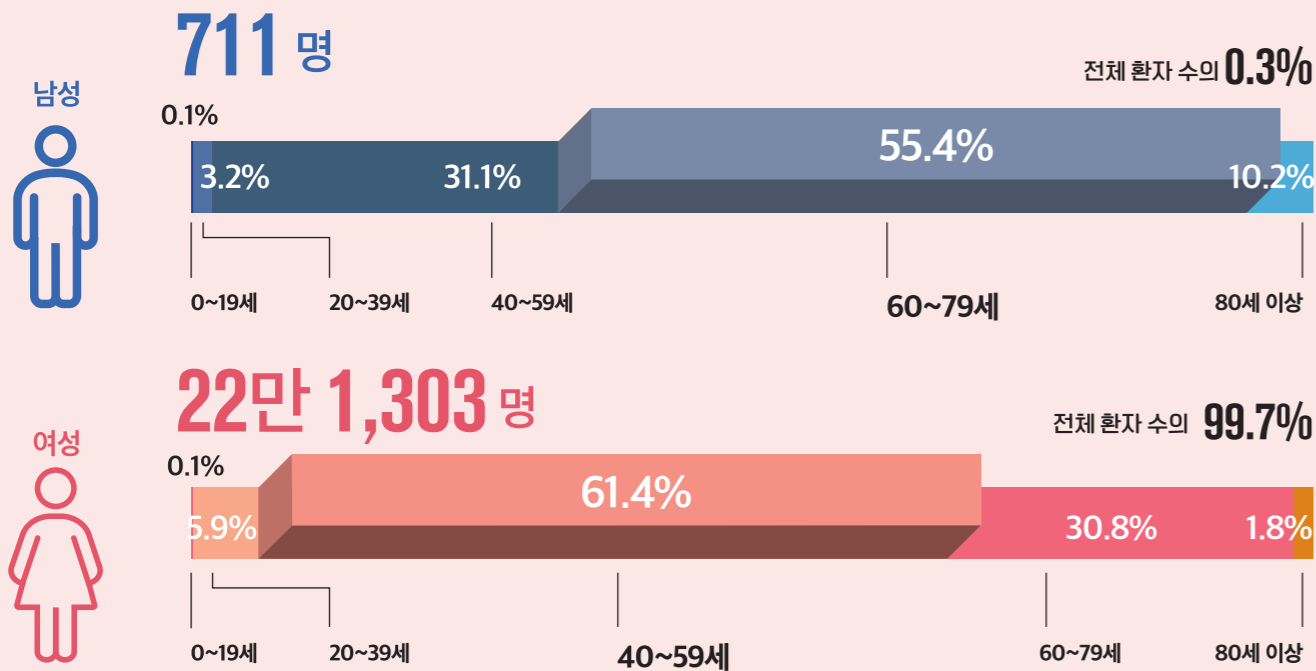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 1. 연도별 유방암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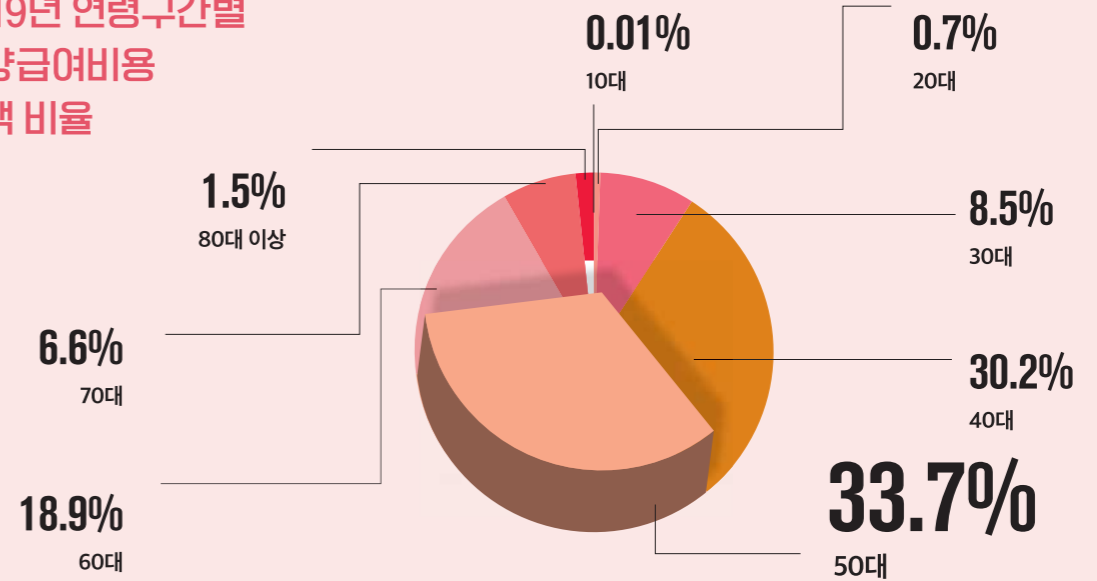


## 2. 2019년 성별, 연령대별 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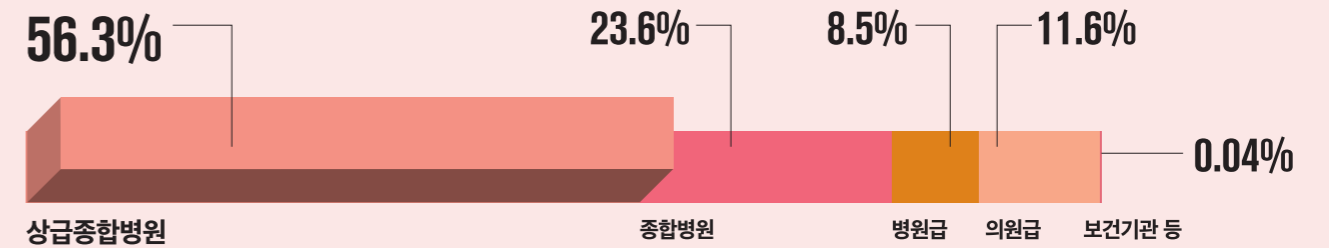
남성은 60~79세, 여성은 40~59세 환자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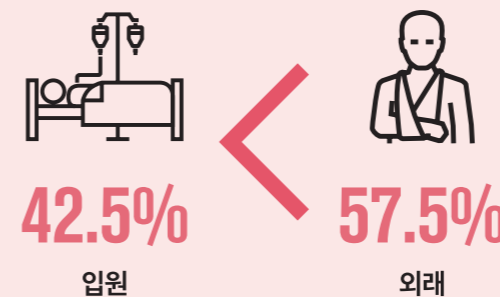
## 3. 2019년 연령구간별 영양급여비용 총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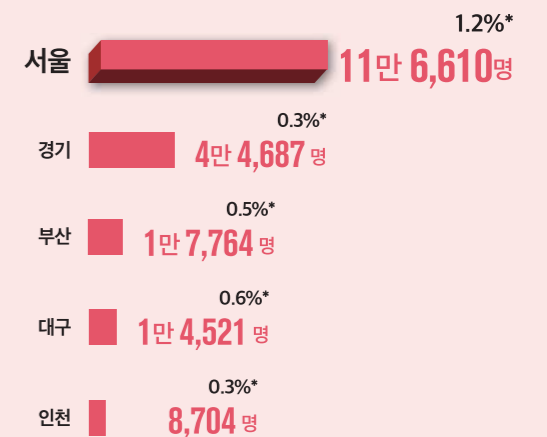
## 4. 2019년 요양기관별 환자 비율



## 5. 2019년 입원외래별 영양급여비용 총액 비율



## 6. 2019년 요양기관 소재지별 환자 수



### 기타 유의사항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제외)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 될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자료와 문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끈끈한 가족애 유방암 극복을 위한 첫걸음

유방암 환자는 암이 발병했다는 공포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혐오, 여성성이 망가졌다는 느낌, 가족 내 역할 변화 등으로 다른 암 질환보다 더 많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방암 환자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 지인들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이은정(건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 위기라고 생각한 순간, 더는 위기가 아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접하게 된다. 특히 여성에게 유방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의 공포와 충격은 인생의 큰 위기상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자신을 돌보기 어렵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에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잘 지내던 관계가 엉켜버릴 수도 있다.

유방암 환자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가족의 역할은 환자 및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환자의 치료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법과 가족의 역할을 통해 위기라고 생각한 순간을 잘 극복해보자.



##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법'

### 1. 메모 및 기록 활용하기

보통 심리적 문제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해 두었다가 진료 시 물어보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 2. 감정 상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리라는 기대에서부터 관계의 악화가 시작된다. 환자 및 가족 모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노력은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여준다.

### 3. 가족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 재정비하기

암 환자가 되면 직장, 양육, 출산 등 생활 전반에 변화가 생긴다. 이를 극복하려면 변화된 삶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있어 가장 가치있는 일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 4.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 가족과의 불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느낀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유방암 환자를 위한 '적절한 가족의 역할'

### 1. 가족 내 역할 분담하기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의 신체적,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 환자를 보다 더 잘 보살필 수 있다.

### 2. 한계를 알고 주변의 도움받기

보호자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꼭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만들어 환자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3.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환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이 항상 곁에서 지지하고 조언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환자가 한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 4. 자조 집단이나 지지 모임 참여하기

주위에서 자신을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환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한다.



#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사평가원 업무),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란

- 예측 가능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다음 해 추진할 신규 평가항목, 항목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 작성 후 매년 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국민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 2021년도에는 총 39항목(본 평가 35항목, 예비평가 4항목)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총계	본 평가			예비평가 소계
	소계	신규항목	계속평가	
39	35	1	34	4

## ● 2021년 주요 내용

### 1. 환자안전과 삶의 질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해 나갑니다.

<b>평가대상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b>치매 첫 평가를 실시</b>합니다.</li> <li>합병증 및 감염예방 등 환자 안전영역 관리 필요성이 높은 '신경차단술' 예비평가를 포함한 <b>총 4항목*의 예비평가</b>를 시행할 예정입니다.</li> <li>* 예비평가: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li> </ul>
<b>평가지표 및 모형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b>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하여 평가</b>를 실시합니다.</li> <li>* (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도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및 대체지표 존재·타당성이 부족한 지표 삭제 (결핵)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마취) 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개선 · <b>환자경험 평가 대상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b>하여 실시합니다.</li> </ul>

### 2. 평가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b>평가포털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도에 구축한 <b>평가정보뱅크에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수집</b>합니다.</li> <li>국민들이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b>평가포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개발</b>합니다.</li> </ul>
<b>평가수행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전자 형식(e-Form)의 표준화된 서식 적용 항목을 확대</b>(2020년 4항목→2021년 7항목)하였습니다.</li> <li><b>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입원 시 상병 정보 부호화(Coding) 관리지침 및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b>하여 지원합니다.</li> </ul>

### 3. 실효성 있는 가치기반 보상체제로 강화하고,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b>가치기반 성과보상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가감지급 항목 정비와 병·의원급 확대</b>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합니다.</li> <li><b>요양병원 평가결과와 수가를 연계</b>하여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 별도 보상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합니다.</li> </ul>
<b>현장 중심 질 향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관 단위 통합 질 관리체계</b>(기존, 개별 평가항목별 접근방식)를 운영합니다.</li> <li><b>지역 IQ 전문가·평가 담당·의료기관 중심의 협력적 컨설팅</b>을 실시합니다.</li> </ul>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 ✓ **01.** 평가 후보 항목 선정 및 예비평가 신규 평가 지표 개발  
국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평가 항목 제안 평가기획단 검토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 ✓ **02.** 연간 평가 계획 수립 평가 계획 공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승인
- ✓ **03.** 평가 세부계획 공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 평가 2개월 전 공개
- ✓ **04.** 평가 수행 자료 조사 및 분석, 신뢰도 점검 등 필요 시 자료 청구(조사표 등)
- ✓ **05.** 평가 결과 분석 및 적용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보고
- ✓ **06.** 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가감지급 적용 시 보건복지부 승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 **07.** 이의 신청



● 2021년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예비평가 제외)

 <p><b>환자중심</b> <span style="float: right;"><b>1 개 항목</b></span></p> <p>환자경험</p>	 <p><b>암질환</b> <span style="float: right;"><b>5 개 항목</b></span></p> <p>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 결과</p>
 <p><b>만성질환</b> <span style="float: right;"><b>4 개 항목</b></span></p> <p>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p>	 <p><b>감염질환</b> <span style="float: right;"><b>1 개 항목</b></span></p> <p>결핵</p>
 <p><b>급성질환</b> <span style="float: right;"><b>5 개 항목</b></span></p> <p>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sup>주1</sup></p>	 <p><b>정신건강</b> <span style="float: right;"><b>4 개 항목</b></span></p> <p>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우울증, (신규) 치매</p>
 <p><b>진료행위 및 약제</b> <span style="float: right;"><b>9 개 항목</b></span></p> <p>약제급여(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18개 수술)<sup>주2</sup>, 혈액투석, 마취, 치과근관치료, 수혈</p>	 <p><b>기관단위</b> <span style="float: right;"><b>6 개 항목</b></span></p> <p>요양병원 입원급여, 중환자실,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신생아중환자실, 중소병원</p>

주1)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주2) 18개 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문의: 자원평가실 병원지정1부  
 김민아 대리(033-739-5847)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 기관이 지정·운영됩니다.

○ 제1기 재활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 확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지정되었습니다.



제1기 1차 기관 (2020년 3월부터) **26개 기관** + 제1기 2차 기관 (2021년 1월부터) **19개 기관** = 총 **45개 기관**

\*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01호, 2020.3.1.시행)

\*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3호, 2021.1.1.시행)

○ 2017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매 3년마다 평가 후 지정·운영되며, 향후 제3기 지정까지 100~150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활의료기관이란

○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 급성기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재활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또는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재활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차례에 걸쳐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 재활의료 혜택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란**

○ 수술 등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기산 및 만료기준
뇌졸중 등 뇌손상, 척수손상	발병 또는 수술 후 <b>90일내</b>	입원일로부터 <b>180일 이내</b>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또는 수술 후 <b>30일내</b>	입원일로부터 <b>30일 이내</b>
하지부위 절단	발병 또는 수술 후 <b>60일내</b>	입원일로부터 <b>60일 이내</b>
비사용 증후군*	발병 또는 수술 후 <b>60일내</b>	입원일로부터 <b>60일 이내</b>

\*우리나라 질병분류로 구분되지 않은 환자군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재활이 필요한 환자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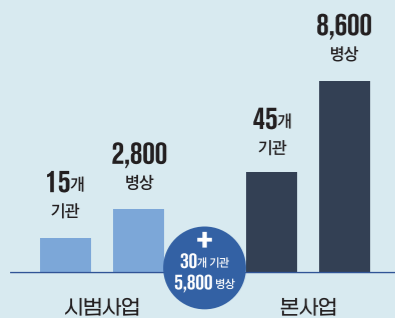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8조·제26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별표2]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19-187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기 재활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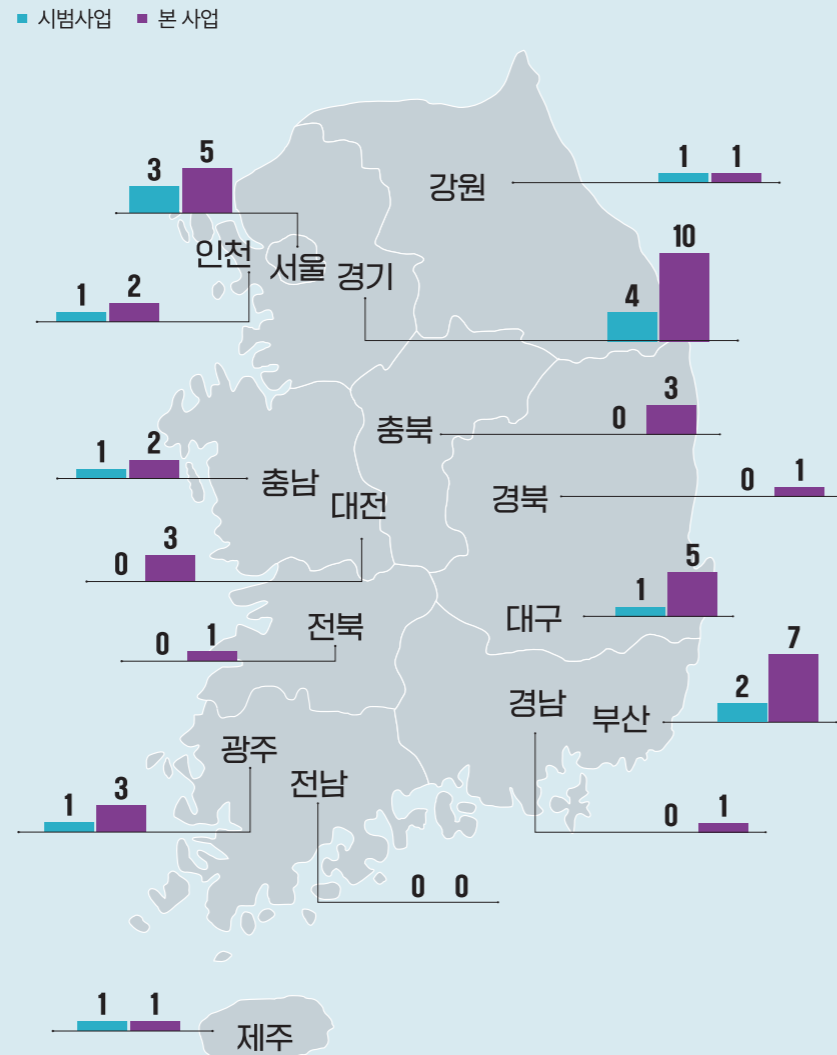
지정기간	지역	요양기관명칭
2020. 3. 1. ~ 2023. 2. 28.	서울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부산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술병원,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대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대전	다빈치병원
	충북	씨엔씨푸른병원, 첼로병원
	충남	천안재활병원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먼유병원
	강원	강원도 재활병원
	인천	미추홀병원, 브래덤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2021. 1. 1. ~ 2023. 2. 28.	부산	메드윌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대구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경북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대전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충북	아이엠병원
	충남	SG삼성조은병원
	경기	베데스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경남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전북	드림솔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 세부 조건별 찾기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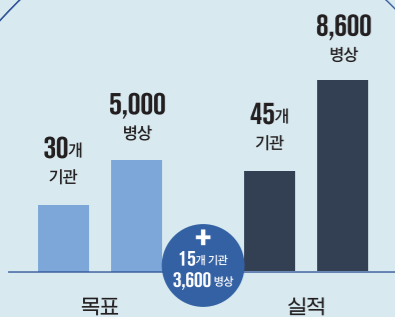
**시범사업-본 사업 비교**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지역별 기관 수**



**본 사업 목표 대비 실적**





Breast Cancer

# 최적의 진료와 최선의 치료로 환자의 내일을 변화시키다

##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곽진호 과장

유방암은 암이라는 불안과 유방 절제로 인한 외적인 공포를 동시에 준다. 유방암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하 '지샘병원')의 곽진호 과장은 적절한 치료는 물론 정확한 전달에 집중한다.

글. 임산하 사진. 헬리오포토



### 환자의 내일에 가치를 두는 진심이 닿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의 암, 유방암. 유방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통칭하는 유방암은 다행히 병에 대한 선행 연구가 활발했으며, 현재도 꾸준한 치료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 생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유방암 1, 2기의 경우 생존율은 90%를 웃돈다. 그런데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동시에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율의 증가로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대면하는 유방외과의의 마음은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지샘병원의 곽진호 과장. 약 25년동안 환자와 만난 그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이자 센터장으로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내일'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병원 의료진이 있기에 지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목표가 1등급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진단, 수술, 방사선·약물 치료 등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지원과 의료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시너지 효과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곽진호 과장  
現 유방·갑상선센터 센터장  
유방·갑상선외과 과장  
진료분야 유방·갑상선외과





###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유방암 치료를 위해 수술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수술이 치료의 전부는 아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광진호 과장은 유방암 완치를 위한 과정에 대해 의료진과 토의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다학제컨퍼런스와 통합암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특징점입니다.” 다학제컨퍼런스는 환자마다 다른 상황에 대해 전문 의료진이 함께 상의하는 자리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뤄지는 정기적인 소통에 이어 비정기적인 협력도 지속한다. 통합암병원 은 암을 집중 관리하는 지샘병원 내의 병원이다. 이곳의 의료진 역시 진료에 앞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환자의 긍정적인 예후를 위해 힘쓴다. 특히 유방암은 수술을 중심으로 치료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는데, 이는 합병증 가능성을 낮추고 유방 전절제술이 아닌 유방보존술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든 환자를 우선하지 않는 치료는 없다.

“물론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보존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학은 수학처럼 정확히 떨어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환자 개인의 특성을 확실히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진정성이 통하다

유방암 수술은 예후가 좋으나 환자에 따라 유방 전절제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유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절제하면 유방 모양의 변형이 불가피하다. ‘가슴은 여성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유방 절제 후 환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상당한데, 단순히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불균형, 상실감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기도 한다. “환자 입장에서 미용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수술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광진호 과장. 그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사는 감정적으로 앞서나가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암’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치료에 따른 완치율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할 때 환자가 겪게 될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민감한 부분일수록 직선의 대화가 도움이 된다는 광진호 과장은 “이는 의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자세입니다”라고 말한다. 언제나 환자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그에게는 2021년 상반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원스톱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그날 상담, 영상검사, 조직검사 등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다.

“하염없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는 언제나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환자에게 우선 연락을 한다. 환자들은 심중팔구 다음날 바로 병원에 방문한다. 진료 날짜만 기다렸을 환자의 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최적의 진료와 최선의 치료로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광진호 과장. 환자에게 밝은 내일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그의 오늘은 누구보다 뜨겁고 눈부시다.

### Mini Interview

박\*\*님 (52세)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고 정신이 없었는데, 광진호 과장님께서 여러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수술 후 항암치료까지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과 전문 간호사가 큰 힘이 되었고, 항암병동이 가깝고, 또 심리적으로 친밀하게 느껴져 의지가 되었습니다. 유방암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사는 감정적으로  
앞서나가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훈 대표위원과  
유튜브 '의사친' 정준우 원장의 만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들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표위원을 만나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들보와 같은 곳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훈 대표위원을 만났다.

정리. 편집실 사진. 헬리오포토 영상. 권오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훈 대표위원 X



유튜브 '의사친' 출연  
정준우 원장 O

## 전문의학적 기준과 협의를 중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O 정준우 원장:** 안녕하세요. 진료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튜브 의사친(의사사람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정준우입니다. 오늘 반가운 당신의 주인공으로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훈 대표위원을 모셨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는 대표위원님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위원님의 소속 부서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X 최훈 대표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의·약학·한방 분야의 각 과별 약 90명의 상근 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에서 전문적으로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O 정준우 원장:** 대표위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심사위원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X 최훈 대표위원:** 저는 1985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부임하여 2019년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동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회 활동도 했는데요,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대한폐경학회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중년여성건강위원회 위원장, 대한산부인과 내분비학회 회장,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쌓아 온 의학적 지식과 진료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O 정준우 원장:** 그럼 대표위원님이 현재 맡고 있으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X 최훈 대표위원:**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산부인과



분야의 의·약학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양급여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기준에 맞게 적절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며, 관련 심사기준안과 심사지침안을 개발하여 제시합니다. 이때 관련 학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확립합니다. 또한 환자 분이나 영양기관의 민원 사항에 대한 자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에 반영되는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

- 정준우 원장: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데, 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 최훈 대표위원: 심사절차는 총 3단계로, 1차 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로 구성됩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법원 3심제와 유사합니다. 각 영양기관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준우 원장: 각 절차마다 명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을 텐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 최훈 대표위원: 심사기준안은, 산부인과 전문의나 해당 학회, 의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교과서, 국내의 학회에서 발표한

임상진료지침이나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도출합니다. 기존의 심사결정사항과 충돌되지 않도록, 심사 및 심의결정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급여비용 적용에 대한 이슈와 그 해답**

- 정준우 원장: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가 2020년 2월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초에는 혼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요?
- ✕ 최훈 대표위원: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확대는 ‘문케어’ 정책의 일환입니다. 적용 초기에는 영양기관이나 환자 분들이 급여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질환에 대한 진찰은 대부분 급여입니다. 일부 환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 비급여 대상이 될까요?
- 정준우 원장: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최훈 대표위원: 네, 맞습니다. 아직도 영양기관에서는 비급여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정준우 원장: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급여 적용이 7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인가요?
- ✕ 최훈 대표위원: 임신부 초음파 검사는 정상임신 동안 총 7회 급여적용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제1삼분기(임신 3개월까지) 동안 총 3회(일반 2회, 정밀 1회) 급여 적용이 되며, 제2삼분기(임신 4개월~10개월)동안 총 7회(일반 3회, 정밀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만약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7회를 초과하여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 정준우 원장: 산부인과에서 난소암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 ✕ 최훈 대표위원: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난소의 혹이나 종양을 발견하여 난소암 혈액 검사를 할 경우, 진찰 목적이므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만약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는데 난소암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 검진 목적이면 비급여이지만 진찰 목적이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공정한 과정으로 소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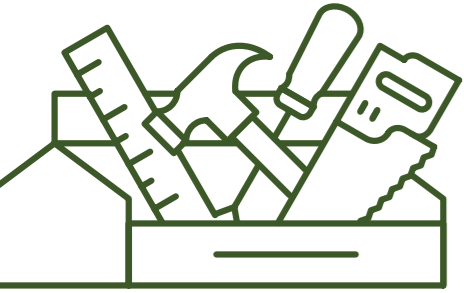
- 정준우 원장: 심사의 기본은 ‘합리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심사 결과에 대해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표위원님께서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하시나요? 덧붙여, 의료계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 최훈 대표위원: 영양급여 관련 심사는 여러 심사위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영양기관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심사기준과 심사지침에 부합하는지 상세히 살핍니다. 그 결과 영양기관의 합당한 요구일 때는 수용하지만, 만약 수용이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정준우 원장: 대표위원님,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영양급여를 제공하는 영양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최훈 대표위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산부인과를 예로 들면, 그동안 심사평가원에서 구축한 심사기준과 심사지침은 관련 전문가 및 학회, 의료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기준에 의문이나 이의가 있는 영양기관은 학회나 협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분들께서도 진료의 급여 대상 여부에 대해 궁금할 경우 심사평가원의 민원창구를 편안히 이용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우 원장: 오늘 최훈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 최훈 대표위원: 감사합니다.

“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





# 차근한 과정 속에 묻어나는 여유, 워킹맘의 힐링데이 수제도마 체험

※ 본 체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수인이, 재인이 엄마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뜻깊지만, 오롯이 저만을  
위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성’으로서  
독립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박성은 대리

“일하느라 육아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예쁜 수제도마를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도마  
위에 맛있는 쿠키를 올려 딸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김성아 대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수제도마를 만드는 과정은 인생길과 닮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과정을 차근히 걸어야만 매끈하고 튼튼한 도마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열정과 끈기를 더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된다. 오늘, 한 부서의 ‘직원’이자 자녀를 둔 ‘엄마’로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는 김성아 대리과 박성은 대리가 함께 이 길에 들어섰다.

글: 임산하 사진: AZA스튜디오

## 힘차게 지원을 나누며 시작하다

앞으로는 치악산의 웅장한 능선이 보이고, 뒤로는 원주천의 줄기가 흐르는 곳에 위치한 캠우드. 이곳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수제도마를 제작하는 공방이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문난 단팥인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김성아 대리과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박성은 대리가 함께 이곳, 공방 캠우드에 방문했다. 문틈으로 사각사각 부드럽게 들려오는 사포질 소리가 이들을 반긴다. ‘입사 동기’이자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수제도마를 만들어서 예쁘게 플레이팅해 보고 싶어요”라며 공통된 바람을 한껏 품은 채 사이좋게 서로의 앞치마를 매 준다.

시작에 앞서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 줄 거예요”라고 의지를 다잡는 김성아 대리를 향해 박성은 대리도 미소를 띠며 힘을 내 보자고 한다. 소녀처럼 화사하게 지원을 나누던 두 사람은 목공예에 대한 애정으로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청하기 시작한다.

월넛을 목재로 선택한 두 사람. 김성아 대리는 “나무 천연의 느낌이 살아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라며 웅이가 있는 목재를 선택하고, 박성은 대리는 단정하고 말끔한 목재를 고른다.

“요리를 좋아하는 친언니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담기에 가장 수수한 모양새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함께 방향을 잡아간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수제도마는 생각보다 '큰일'이다.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매 단계마다 집중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목재를 선택했으니 이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스케치한다. 완성에 대한 기대로 힘 있게 그려 나가는 모습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을 떠오르게 한다. 김성아 대리는 손잡이가 달린 도마를, 박성은 대리는 도마 내에 곡선의 손잡이가 뚫린 모양의 도마를 그린다. 각자의 '기대'가 그려진 목재는 테이블에 고정시킨 뒤 재단한다. 실톱으로 오려내는 공구인 '직소기'로 스케치된 길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날카로운 톱날을 다루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필요하다. 먼저 재단을 마친 김성아 대리는 박성은 대리에게 돕겠다고 나선다. "내가 뒤에서 받쳐 줄게"라는 말에 박성은 대리는 안심하며 방향을 잡아간다. "입사 동기이자 주말부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직장 동료와 육아 메이트를 넘나들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라고



“**힘든 길에서도 함께 보폭을 맞추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날마다 수제도마처럼 뜻깊은 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둘 사이를 소개하던 박성은 대리의 말이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이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내어 주는 두 사람. 둘이 함께이기에 '완성'은 '완벽'에 가까워진다.

**마음과 에너지를 담아 완성한 오늘**

모양이 얼추 갖춰진 도마는 사포질을 통해 맨손으로 사용해도 까끌거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무의 결을 따라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포질을 시작하자마자 “때 미는 것 같네요”라고 말하는 김성아 대리. 박성은 대리도 그 말에 공감하며 웃어 보인다. 그런데 사포질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다. 나무 고유의 까칠까칠함을 없애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라며 점점 나무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차분히 이어진 사포질 후, 보드라워진 도마 위에 글씨를 새긴다. 박성은 대리는 본인의 애칭을 담아 '어느 멋진 날, 썩♡', 김성아 대리는 딸의 이름을 넣어 '하윤맘♡'을 적는다. 그리고 날짜를 새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음과 에너지를 담았던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어서 미네랄오일을 바른다. 음식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코팅하는 것이다. “아이들 바디로션을 발라 주는 것 같아요”라는 박성은 대리. 틈마다 꼼꼼히 발라 주는 모습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이 보인다. 미네랄오일을 곳곳에 바르니 나무의 결마다 숨겨졌던 색이 나타나며 수제도마의 진가가 드러난다. 팔이 아픈 만큼 고된 시간도 있었지만 끝내 멋진 완성품을 만들어 낸 두 사람. 수제도마가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 삶의 여정과도 닮아 있다. 다만 힘든 길에서도 함께 보폭을 맞추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날마다 수제도마처럼 뜻깊은 선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제도마 만들기**

- 01  1. 사용할 도마의 목적에 따라 목재를 선택한 뒤, 완성할 모양에 따라 도마 위에 스케치를 한다. 절단 시 헛갈리지 않도록 과감하고 진하게 스케치하는 것이 좋다.
- 02  2. 재단 장비를 이용해 스케치한 선을 따라 절단한다. 특히 '직소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힘 있게 눌러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 하며, 톱질이 완전히 멈췄을 때 손을 떼야 한다.
- 03  3. 나무의 결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사포질을 진행한다. 사포는 거친 사포에서 고운 사포로 단계를 나누는데, 손으로 직접 하기 힘들 경우 전동 사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 04  4. 미네랄오일을 도마의 틈마다 꼼꼼히 발라 준다. 하루 정도 그늘진 곳에 세워 두어 오일을 건조시킨다.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캠우드(CAM WOOD)**  
수제도마 원데이 클래스뿐 아니라 원목 테이블, 야외 테이블 등 여러 목공 작업을 진행한다. 원데이 클래스 체험 시간은 최소 2시간이며, 체험이 완료되면 바로 본인만의 수제도마를 품에 안을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꽃밭머리길 14  
체험문의 010-6230-8218





#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심사평가원의 뿌리 자원평가실

지피지기(知彼知己).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말처럼, 전략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물으면 자원평가실이 답한다. 보건의료자원을 잘 아는 자원평가실이 있기에, 심사평가원은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글. 이성미 사진. 헬리오포토

## 보건의료자원 속에 뿌리를 내리다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보건의료자원이란 보건의료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포괄하는데,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자원의 규모와 양은 매우 방대하다. 자원평가실 5개 부의 업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파악·관리하고 평가한다는 목적에 기인해 나뉜다.

자원운영부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이하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요양기관이 신고한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자원관리부는 간호관리료, 요양병원 입원료 등 각종 차등제와 가정간호사업 등 특수 분야 운영기관의 관리를 담당한다. 의료장비 사후관리도 자원관리부의 몫이다.

병원지정1부는 상급종합병원, 재활요양기관 지정·평가 및 난임 시술 요양기관 평가를 담당한다. 병원지정2부는 전문병원, 아동·분만병원, 어린이재활요양기관 등을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원지정1·2부는 심사평가원이 난임, 아동, 재활 등에 관한 의료안전망 보장에 주력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부는 코로나19로





요양기관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산출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

자원평가실의 역할에 대해 문덕현 실장은 “심사평가원을 커다란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원평가실은 튼튼한 뿌리”라고 말한다. 자원평가실이 보건의료자원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정책 개발 및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뿌리에서 영양분이 골고루 뻗어 나가 건강한 열매를 맺듯, 자원평가실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느냐에 따라 타 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도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원평가실은 요양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사후관리 시스템 기반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자원평가실은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신고 편의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과 함께 통합신고포털이 구축되었다. 통합신고포털 덕분에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각각에 중복으로 신고해야 했던 절차가 생략되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 심사평가원은 지자체의 특수의료장비 정보 연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원평가실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합동 워크숍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사업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의료장비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낸 점도 괄목할 만하다. 자원평가실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의 연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미검사 장비\*가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별도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사전·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운영부 이경수 부장은 자원평가실의 올해 목표 역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질 향상”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보건의료자원 현황 점검을 독려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연계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미검사 장비: 의료법 제37조·제38조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정기 검사, 서류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

### 국민건강이 있는 곳에 자원평가실이 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자원평가실은 ‘음압병상 운영현황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매일 요양기관의 병상 정보를 파악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병상을 신속히 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관리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자원평가실은 국민건강과 연관된 곳이라면 어디에나 손을 뻗고 있다. 병원지정1부 오경이 팀장은 “자원평가실은

내부적으로 거의 모든 부서와, 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10여 곳 이상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분야 요양기관 지정평가(상급종합병원, 재활요양기관, 어린이재활요양기관, 난임시술기관, 아동·분만병원 등)를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밀접하게 업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자원평가실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소통 능력과 업무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원관리부 최병성 팀장은 “자원평가실은 수평적이고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직원 간 소통하며,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집약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직원 개개인 또한 자발적으로 업무 관련 스테디나 직무 교육에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심사평가원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자원평가실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세상은 넓고 자원은 많다.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자원의 범위는 더욱더 크고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자원평가실은 그보다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평가실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분리로, 환자 간 접촉을 차단하여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는 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대비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사진 왼쪽부터 자원운영부 설용환 팀장, 병원지정1부 오경이 팀장, 자원관리부 박영훈 대리, 병원지정2부 박진관 주임연구원

### Mini Interview 자원평가실 문덕현 실장

Q1. 자원평가실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국민안심병원 지정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신속 병상 배정을 위한 병상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인프라 관리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주기 단축 및 분야 확대와 난임·아동·재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Q2.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보건의료자원 관리는 심사평가원,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현황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만 정보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 NO! Stress

## 인간관계로 쌓이는 직장 스트레스 완전정복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김 과장이 상담실을 방문했다. 새로 온 상사가 답답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임 상사와는 달리, 새로 온 상사는 정이 없고 일밖에 모른 데다 사소한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해서 숨이 막힌다고 했다. 자꾸 불만이 쌓이다 보니 상사 앞에서는 알겠다고 했지만 뒤돌아서면 시키는 일만 대충 한다고 털어놓는 김 과장. 그 결과 상사와는 회복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려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할까?

글. 문요한(정신경영아카데미 대표)

### 인간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직장생활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것은 일보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2015년 한 취업 포털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90%가 스트레스가 심해 화병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사내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65%였고, 과다한 업무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25%였다. 결국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는 일 자체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화병으로 이어질까? 싫은 사람이지만 피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사적인 관계라면 거리를 두거나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직장생활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늘 상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의 인간관계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공과 사를 잘 구분한다.** 사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며 관계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기에 자기를 개방하고 비교적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공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그러므로 서로 마음이 상해도 할 일은 해야 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다만 친밀한 관계는 예외적이며 일반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는 협력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직장에서 관계를 잘 푸는 이들은 모든 이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덜 실망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것투성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상대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들은 '상대도 나랑 비슷하겠지?'라는 생각 대신에 '상대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궁금함을 가진다. 그 궁금함이 있기에 상대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상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를 위한 노력은 빛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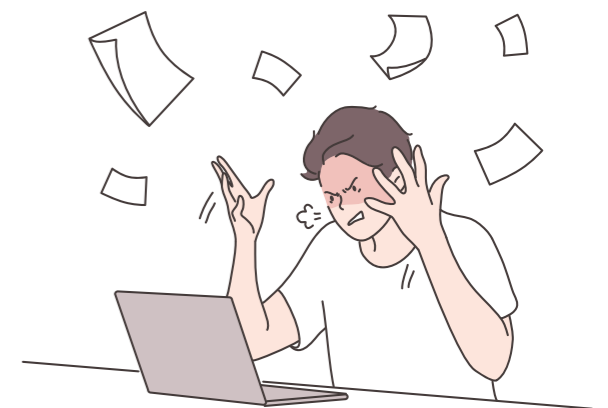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안다.** 직장의 인간관계는 대화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데, 공적관계에서 대화의 목적은 불만을 전달하거나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공통의 접점을 찾아가는 데 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의도와 표현을 비교적 일치시켜 이야기한다.



**보상에 치중하기보다 업무 전문성을 구축한다.** 직장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과 보상에 치중하기보다 자립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뒀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

###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이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즉, 스트레스에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을 때가 많고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무언가 시도했다는 것과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것은 크게 다르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 서서히 목소리를 점령하는 성대결절

‘한국 최고의 소프라노’ 타이틀을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천서진(김소연 역). 그는 이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자신의 과오와 끊임없는 욕망이 이를 방해한다. 고래고래 비명을 질러야만 하는 예민한 상황을 지속해서 겪다 보니 목이 제일 먼저 망가지게 되는데, 그에게 찾아온 성대결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보는 성대결절

글. 임산하 감수. 이승원(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사진. SBS <펜트하우스>



###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출연 : 이지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등  
편성 : SBS (2020.10.26.~)

100층 펜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욕망의 대서사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복수를 다룬 드라마다. 청아예술제 대상 트로피를 사이에 둔 악랄한 결전 속에 욕망으로 얼룩진 인간 군상의 모습이 가감 없이 드러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펜트하우스>는 어디로 뿔지 모르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다.

### 소중한 목소리를 잃게 하는 성대결절


성대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인대와 근육,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대의 유동성과 점막의 진동이 원활해야 우리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성대에 오랫동안 무리가 가면 성대에 굳은살과 같은 결절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성대가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쉰 목소리,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는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거나 목을 심 없이 사용하는 가수, 교사와 같은 직업군에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 천서진(김소연 역)은 성악가라는 직업적 특성과 함께 소리를 자주 지르는 행동으로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했고, 결국 점막 표피세포의 기저막이 두꺼워지면서 성대결절이 발생하게 된다. 천서진(김소연 역)이 병원을 찾게 된 것은 소프라노 공연을 준비하던 때 고음을 시원하게 내지 못한 까닭이다. 이처럼 성대결절이 생기면 일상적인 목소리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음에서 분열되어 가성 및 고음 처리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 성대결절을 알리는 몸의 신호


성대결절은 직업적인 영향 외에도 지속적인 과다한 음성 사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과다한 음성 사용으로 성대를 혹사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극으로 성대 점막이 두꺼워 지다가, 어느 순간 혹처럼 변해서 성대결절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큰소리를 내면서 노는 어린이의 경우, 아직 성대의 구조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손상을 쉽게 입는다. 그런데 실제 성대결절이 발생하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다가 특별한 통증이 없어, 질환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평소와 달리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는 성대결절을 알리는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고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

성대결절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성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01.**  **충분한 수분 섭취**

성대 점막이 마르면 진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실내 습도도 60~7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에서 수분을 빼앗는 행위인 카페인 섭취도 줄여야 한다.
- 02.**  **편안한 높낮이로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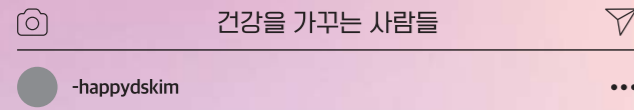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속삭이는 소리도 좋지 않다. 소리를 일부러 조절하는 것은 성대를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로 편안한 소리를 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03.**  **넉넉한 휴식과 마사지**

성대를 사용한 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한다. 특히 목소리를 많이 사용한 경우 후두마사지를 병행해 주면 좋다. 목울대의 윗부분을 잡고 작게 원을 그리듯 문지른 뒤 피부를 쓸어내리듯이 아래로 내리며 마사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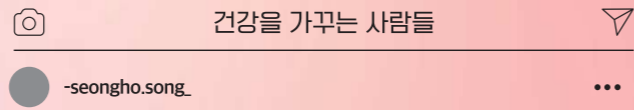
# 건강을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나만의 운동법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처럼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운동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동으로 체력 증진에 힘쓰는 독자들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코로나19라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열심히 필라테스로  
내 몸 건강 챙기기!  
짐볼, 밴드, 폼롤러 등을 활용한 소도구 필라테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팝요가, 잔잔한  
음악에 맞춰 심신의 안정을 주는 힐링요가, 리포머, 체어,  
스프링보드를 활용한 대기구 필라테스, 힘들지만 50분간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꼭꼭  
일주일 세 번은 수업에 참가하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건가사 #건가사이벤트 #심평원사보 #건강을가꾸는사람들  
#건강을가꾸는도전 #건강미 #건강한나 #건강한나를위해 #푸시업  
#푸시푸시베이베 ♪

푸쉬업푸시푸시베이베  
나의 건강함과 멋진 가슴을 위하여!!  
25번의 푸시업 매일매일!!  
나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스트레스 해소!!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푸시푸시베이베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5 + 6월호

#나누는 건강의 주제는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을 대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한 나만의 건강 다이어트법을 공유해 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2분을 포함해 선정된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

더 좋은 의료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2021년 5월~11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사·간호사 영역 / 투약 및 치료과정 / 병원환경 / 환자권리보장 / 전반적 평가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 약국 → 병원평가정보 → 환자경험]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HIRA NEWS



### 임직원 헌혈 주간행사 실시

심사평가원 본원 및 10개 지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임직원 상반기 헌혈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총 2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기증한 헌혈증서는 희귀난치병 아동 치료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2040 적정성 평가 발전 포럼 개최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2일, 강남 메리츠타워(아모리스홀)에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포럼은 그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 조신 상임감사 취임식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5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조신 신임 상임감사 취임식을 진행했다. 조신 상임감사는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상임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의 나약함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패치 나눔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6일, 원주 본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패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직원들에게 마스크패치를 나누어주며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유신

# 건강가사를 견뎌드립니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 VOL.181

2021. March | April

- 01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02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절차 개선 시행
- 03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0년 하반기, 12차)
- 04 평가지표정보 한 눈에 보는 의료 질 평가정보뱅크
- 05 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공개
- 06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 0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작성이 어렵다면?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문의: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김한나 대리(033-739-1977)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쇄물, 벽보 등에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서 정한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 2021년 달라진 점

#### ①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대상 확대 (병원급 ⇒ 의원급)

-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전	개정후
병원급	의무	의무
의원급	자율	의무

#### ② 고지 양식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입이 추가되었습니다.
- '항목' 및 '진료비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행위료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 위 표는 '행위료' 양식이므로, 이외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는 별도 양식을 확인 바랍니다.

\*\* 세부작성요령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별표2]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을 확인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란?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고지 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의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작된 고지 양식을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

### ■ 이용절차



※ 자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 [지원서비스 가이드](#)

# 02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절차 개선 시행

## 배경

- 비급여 진료비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에서 과다본인부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복잡한 환불절차로 인해 국민 불편 호소 및 불만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2021년 3월 15일부터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 ※ 비급여 진료비확인서비스란?

-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 「의료급여법」 제11조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특정내역 구분 코드 작성요령)

## 주요 개선사항

■ 시행일 : 2021.3.15

■ 대 상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용이 급여(본인일부부담) 비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존	개 선
확인 신청자가 요양기관 및 약국 직접 방문	확인 신청자가 요양기관 및 약국 방문 생략

## 청구방법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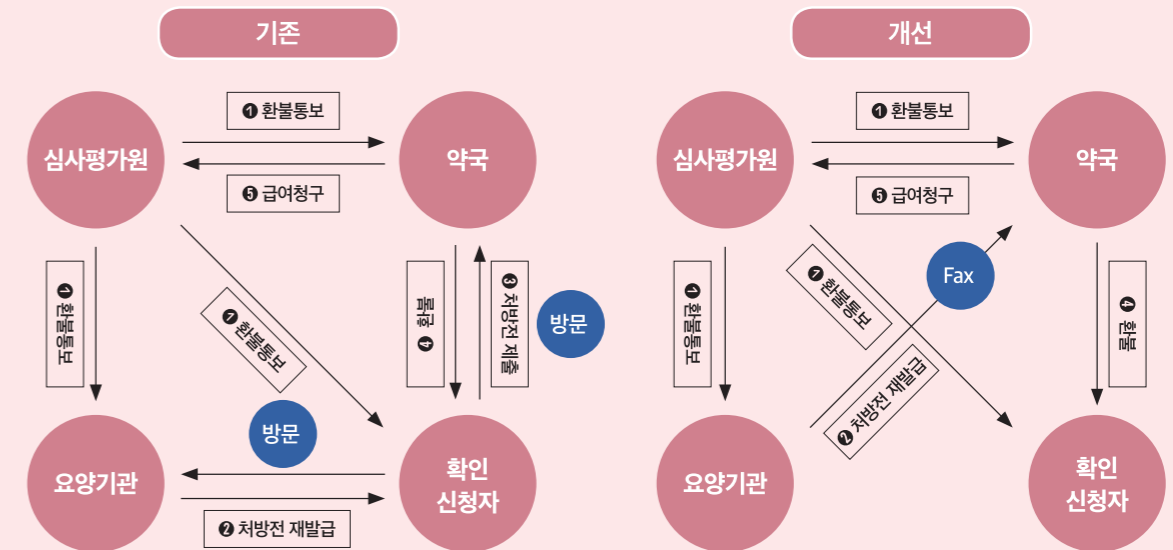
-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내역명	구분코드	작성요령
MS010	민원처리결과 급여 결정 진료분 (*)	X(1)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를 기재 ※ 이 경우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은 기타내역(MX999, JX999)에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하여야 함

## 개선사항

구분	기 존	개 선
요양기관	• 급여결정 통보에 따라 급여로 원외처방전 변경·재발행하여 확인 신청자에게 원본 제공	• 급여결정 통보에 따라 급여로 원외 처방전 변경·재발행하여 약국에 FAX 등 송신
확인 신청자	• 요양기관 방문하여 급여로 변경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국에 전달 후 환불금 수령	• 약국으로부터 환불금 수령(계좌이체 등)
약국	• 확인 신청자가 제출한 급여 전환 처방전과 급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과다본인 부담금 환불 및 약제비용 급여 청구	• 요양기관에서 FAX 등으로 송신된 급여 전환 처방전과 급여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과다본인 부담금 환불 및 약제 비용 급여 청구

###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도



※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03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0년 하반기, 12차)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최미순 팀장(033-739-3563)

## 평가목적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약품비에 대하여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 2014년 9월 1일부터 반기별로 총 12회차 지급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반기 단위) 2020년 1월~6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 평가내용 및 산출방법

### ■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 저가 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한 경우
  - 저가 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 약품비 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구분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저가 구매 장려금
산출방법	○ 사용량 감소 절감액 × 기관별 지급률 - 사용량 감소 절감액 : 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 지급률: PCI 1.0일 때 35% (최소 10%~최대 50%) ※ 입원·외래 각각 산출	○ 저가 구매 절감액 × 기관별 지급률 - 저가 구매 절감액 : 2약제별(상한가-실구입가) × 사용량 - 지급률*: PCI 1.0일 때 20% (최소 10%~최대 30%) * 약국의 경우 기본지급률(20%) 적용 ※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입원·외래 각각 산출

## 평가결과

- 산출대상은 총 49,414개 기관, 약품비 72,243억 원이며, 처방·조제 장려금은 6,405개 기관에 537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세부적으로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5,405개 기관에 160억 원이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1,399개 기관에 377억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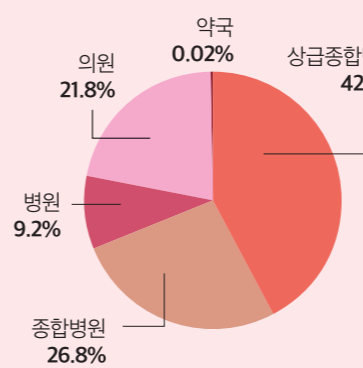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

(단위: 기관,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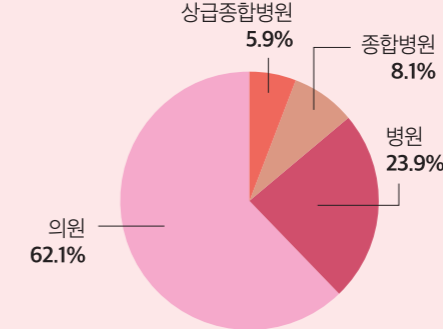
구분	처방·조제 장려금(A+B)		사용량 감소 장려금(A)		저가 구매 장려금(B)	
	기관 수	금액	기관 수	금액	기관 수	금액
전체	6,405 (100.0)	537 (100.0)	5,405 (100.0)	160 (100.0)	1,399 (100.0)	377 (100.0)
상급종합	42 (0.7)	227 (42.3)	18 (0.3)	10 (5.9)	41 (2.9)	217 (57.7)
종합병원	222 (3.5)	144 (26.8)	127 (2.3)	13 (8.1)	177 (12.7)	131 (34.7)
병원	820 (12.8)	49 (9.2)	694 (12.8)	38 (23.9)	260 (18.6)	11 (2.9)
의원	5,309 (82.9)	117 (21.8)	4,566 (84.5)	99 (62.1)	909 (65.0)	17 (4.6)
약국	12 (0.9)	0.1 (0.02)	-	-	12 (0.9)	0.1 (0.02)

\* 처방·조제 장려금 (A+B)기관 수는 사용량 감소 장려금(A) 및 저가 구매 장려금(B) 모두에 해당할 경우 1개 기관으로 산정하여, 실제 더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장려금액은 반올림한 값으로, 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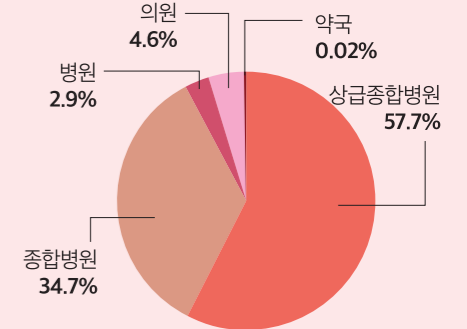
[처방·조제 장려금] (A+B)



[사용량 감소 장려금] (A)



[저가 구매 장려금] (B)



## 향후 계획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 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 합니다.
- 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1년 7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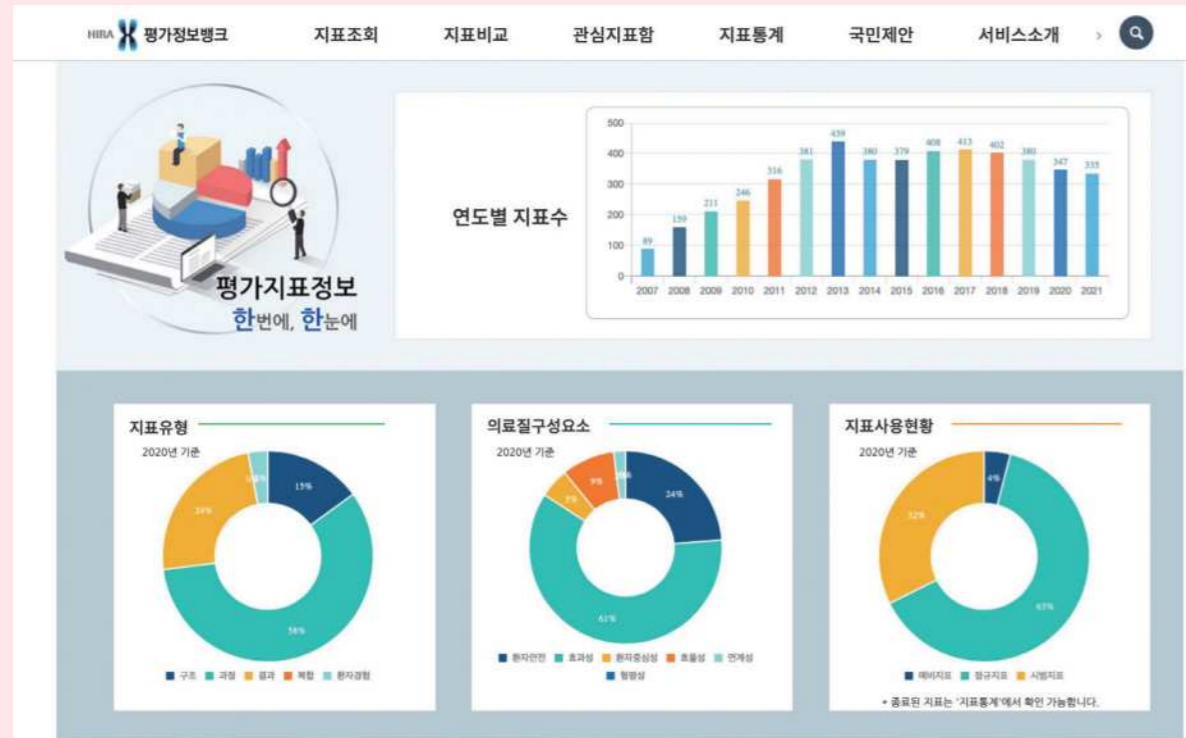
# 04 평가지표정보 한 눈에 보는 의료 질 평가정보뱅크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분석부(033-739-3545, 3546)

## 평가정보뱅크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평가지표정보 서비스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지표 상세 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하는 정보센터이자,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창구입니다.



- '평가정보뱅크'는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차수별 이력을 반영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표 조회를 통해 지표 설명, 분류체계 정보, 지표이력, 평가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체계란?

- 평가지표 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분류체계로서 13개 영역으로 구분

지표유형	구조, 과정, 결과, 복합, 환자경험
의료 질 구성요소	환자안전, 효과성, 환자중심, 효율성, 연계성, 형평성
임상주제	신경계 질환, 눈의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23개 질환군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예방 및 건강검진,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급성기치료, 재활치료 등
서비스 제공형태	입원, 외래, 응급, 기타

\* 기타 분류영역: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대상인구, 평가대상기관, 평가자료원, 지표사용현황, 평가결과활용, 지표활용제도, 평가관리기관

## 평가정보뱅크 이용방법

### 지표조회

평가지표를 분류영역별, 평가항목별, 평가연도별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표조회" 화면에서 검색하여 원하는 지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지표정의, 산출기준, 평가대상인구, 평가대상기관, 선정배경, 분류체계 정보 등 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표조회



### 지표비교

비교하여 보고 싶은 평가지표들의 상세설명서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

- 지표조회 목록에서 비교하고 싶은 지표를 선택하여 "지표비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상단의 "지표비교"에서 선택한 지표의 상세설명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OPC0001-00]	[OPC0001-01]	[OPC0001-02]
지표 사용 현황	전규지표	전규지표	전규지표
지표 정의	환자구성을 감안한 요양기관(의원)당 환자의 평균 약품비가 전체 요양기관(의원) 평균 약품비에 비해 얼마나 고가인지 여부	환자구성을 감안한 요양기관(의원)당 환자의 평균 약품비가 전체 요양기관(의원) 평균 약품비에 비해 얼마나 고가인지 여부	해당년도에 실제 발생한 요양기관(의원)의 평균 약품비
분자	환자의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한 해당 요양기관(의원)의 환자당 평균 약품비	환자의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한 해당 요양기관(의원)의 환자당 평균 약품비	평가 대상기관 동안 발생한 해당 요양기관(의원)의 평균 약품비
분자_포함기준	■ 산출기준 ○ 대상 요양기관(의원)의 연령 및 성별별 환자당 평균 약품비에 대상 요양기관(의원)의 모든 환자 수를 곱한 값	■ 산출기준 ○ 전체 요양기관(의원)의 연령 및 성별별 환자당 평균 약품비에 대상 요양기관(의원)의 모든 환자 수를 곱한 값	■ 대상 성별 및 약품비 기준 ○ 외래진료로 청구한 전체 상병
분자_제외기준			■ 중증-취약계층 상병 및 간염병 진단 시 제외
분모	환자의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한 전체 요양기관(의원)의 환자당 평균 약품비	환자의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한 전체 요양기관(의원)의 환자당 평균 약품비	
분모_포함기준	■ 산출기준 ○ 전체 요양기관(의원)의 연령 및 성별별 환자당 평균 약품비에 대상 요양기관의 모든 환자 수를 곱한 값 ■ 대상 성별 ○ 외래 진료로 청구한 전체 상병 ■ 약품비 기준 ○ 건강보험 외래 원내 진료 총액(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 산출기준 ○ 전체 요양기관(의원)의 연령 및 성별별 환자당 평균 약품비에 대상 요양기관의 모든 환자 수를 곱한 값 ■ 대상 성별 ○ 외래 진료로 청구한 전체 상병 ■ 약품비 기준 ○ 건강보험 외래 원내 진료 총액(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분모_제외기준	■ 중증-취약계층 상병 및 간염병 진단 시 제외	■ 중증-취약계층 상병 및 간염병 진단 시 제외	
산출시 참고사항	■ '기타'는 평가기 전(보통(4월~12월) 보던 최만주제 전(전(12월) 이후)	■ '기타'는 평가기 전(보통(4월~12월) 보던 최만주제 전(전(12월) 이후)	■ '기타'는 평가기 전(보통(4월~12월) 보던 최만주제 전(전(12월) 이후)

# 05 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공개

문의: 자원평가실 병원지정1부  
오경이 팀장  
(033-739-5831)



## 평가정보뱅크 이용방법

### 관심지표함

관심 있는 지표를 선택하여  
관심지표에 추가하면 나만의  
지표함에 저장되어 다음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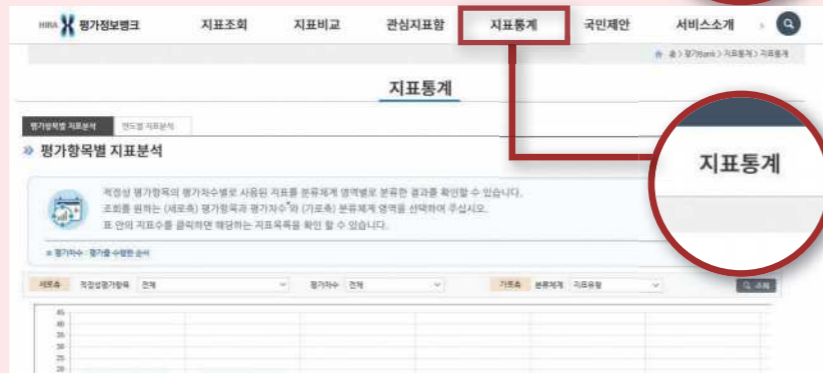
1) 조회된 지표를 선택하여  
“관심지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2) 상단의 “관심지표함”에서 추가한  
지표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표통계

평가항목별, 연도별로 사용한  
지표의 통계 결과를 분류 체계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제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분야 또는 수행하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 평가정보뱅크의 주요 기능은 아래 경로의 '서비스 소개 > 이용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평가정보뱅크  
-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평가정보뱅크

## 평가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도입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시술 건수 및 의료기관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급여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및 사실혼 급여적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난임시술 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 및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17년 기초평가 및 '18년 시범평가를 거쳐 '19년 1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2년 시행되는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되어 평가계획을 사전 공개합니다. 의료기관은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질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2021년 1월~12월 진료분(총 12개월)
- 대상기관**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 대상건** • 평가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난임시술건 전체(급여, 비급여 포함)
- 평가내용** • [평가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평가2] 시술별(인공수정/체외수정)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평가내용

- [평가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별표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평가2] 시술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질관리 현황, 실적분석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인공수정시술 6개 평가지표(모니터링 지표 1개 포함), 체외수정시술 1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 평가기준

### [평가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2])

구분	자궁내 정자주입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
시설	가. 진료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나.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	
장비	가. 초음파기기	
	나. 현미경	
	다. 정액검사장비	
	라.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장비	
전문인력	가.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평가2] 시술별(인공수정/체외수정)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평가지표

구분	인공수정시술 평가지표		체외수정시술 평가지표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25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7
			배아생성 전담 인력당 시술건수	16
			배아생성 전담 인력의 보수교육 이수율	7
			난자채취실의 응급장비 보유 여부	5
			배아배양실 공기 청정도 관리	신규 10
질 관리 현황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15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5
	난임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20	난임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5
			다배아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	10
			원인불명 난임 비율	신규 5
실적 분석	기관 연간 시술 건수	신규 20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채취 시술건수	변경 10
	삼태아 이상의 임신율	20	다태아(쌍태아 이상) 임신율	변경 10
	평균 임신율(모니터링 지표)	-	표준화 임신율/전체 임신율	10

## 평가방법

- 평가자료는 자료수집기간 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기관조사표 및 난임시술 기록지)를 활용합니다.
- [평가1] 난임시술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첨부한 증빙자료와의 대조·점검을 통해 지정유형별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기준 모두 평가합니다.
- [평가2] 시술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는 평가지표별 산출식에 따라 지표별 결과값을 산출한 후,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 평가 결과 활용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 의료기관에는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등급, 평가지표별 전체 평균 및 동일종별 평균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며,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세부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 난임마당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ef.hira.or.kr) > 공지사항

# 06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제도(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033-739-1593, 1595)  
시스템 문의: 정보운영실 심사정보표준화부(033-739-0813, 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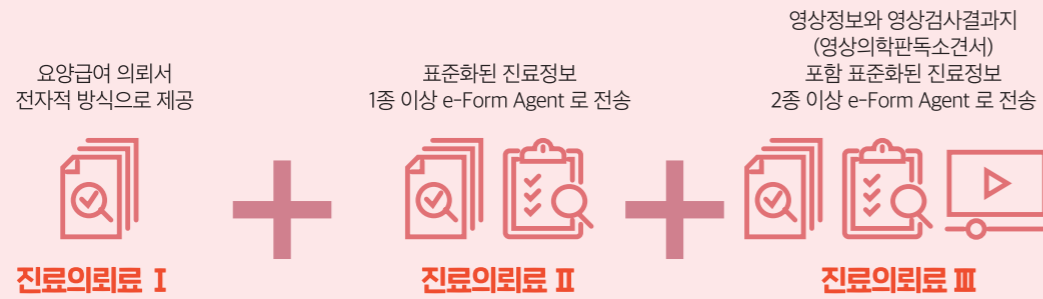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진료·영상정보 교류(중계시스템)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1.4.1. 진료분부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시 e-Form Agent로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진료의뢰료 가산 수가가 인정됩니다.

※ 다만, 유예기간 종료('21.3.31.) 후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시 인터넷 브라우저(웹방식)에서 진료정보를 직접 작성 또는 PDF 등 파일 첨부는 가능하나 진료의뢰료(II, III) 가산 수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료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기준

HIRA e-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진료의뢰 시 수가 차등 적용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진료의뢰료 기준



구분	산정 기준	산정예시(의원급 기준)	
진료의뢰료 I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시 산정	IA101 (진료의뢰료 I)	10,280원
진료의뢰료 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b>표준화된 진료정보 1종 이상</b> 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b>추가 산정</b>	IA101 (진료의뢰료 I) IA110 (진료의뢰료 II)	10,280원 4,450원
진료의뢰료 I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b>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b> (또는 영상의학판독소견서) 포함 <b>표준화된 진료정보 2종 이상</b> 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b>추가 산정</b>	IA101 (진료의뢰료 I) IA120 (진료의뢰료 III)	10,280원 8,750원

### ■ HIRA e-Form 시스템이란?

• 의료기관의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료정보를 표준화된 형태(표준서식)로 제출하는 시스템

#### ※ 관련 근거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 2020.10.29.)

\*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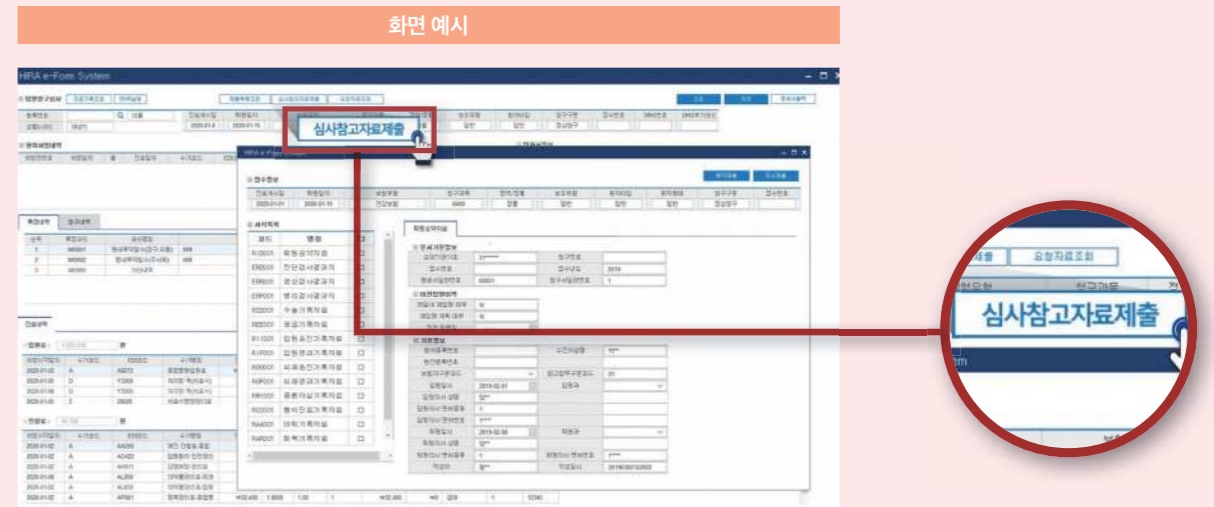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e-Form Agent 사용 관련 안내

• HIRA e-Form Agent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기관 의무 기록정보와 표준서식의 항목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표준서식 제출 화면 e-Form 표준서식을 Agent로 제출하는 화면 예시로 별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 상세 개발 가이드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웹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웹포털(<https://ef.hira.or.kr>)

<중계시스템에 표준서식 제출 시>

1. 진료 의뢰·회송서 Agent로 제출

- ① 의뢰·회송서 작성
- ② e-Form 시스템(Agent) 표준서식 작성 시 의뢰회송번호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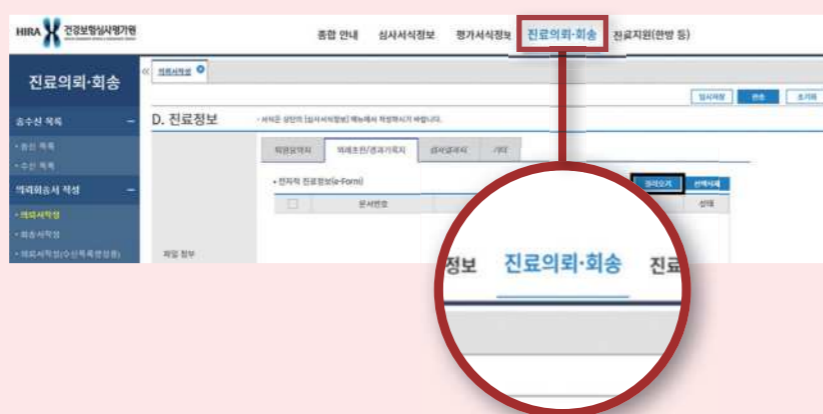
(예시 1) 진료 의뢰·회송서 Agent 전송 화면



(예시 2) e-Form 시스템(Agent) 표준서식 제출 화면



(예시 3) e-Form 표준서식 불러오기 화면



2. 진료 의뢰·회송서 웹포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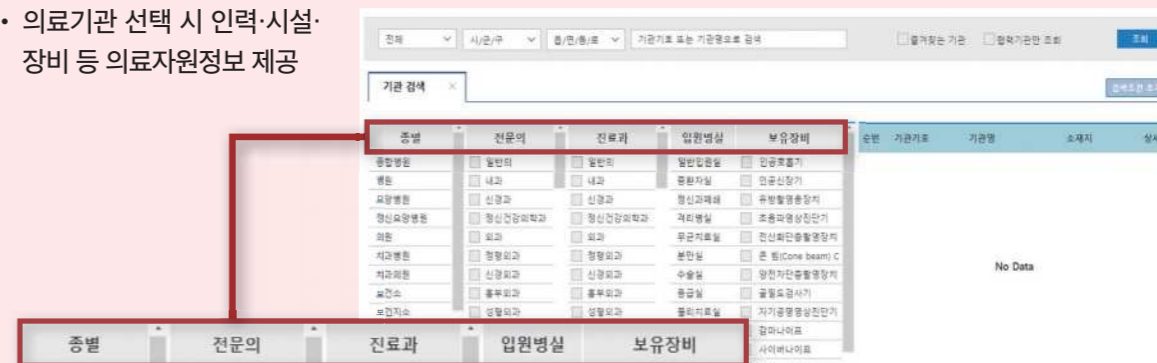
- ① e-Form 표준서식을 Agent를 통해 사전에 작성(예시2 참조)
- ② 웹포털에서 요양급여 의뢰·회송서 작성 시 e-Form 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첨부  
- 진료의뢰·회송 > 의뢰·회송서 작성 > 의뢰서 작성 > D. 진료정보의 전자적 진료정보(e-Form)에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기능 개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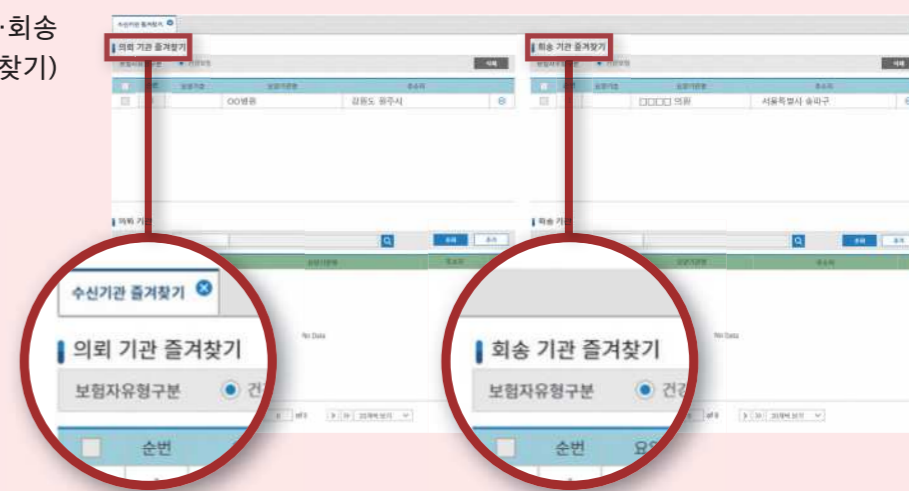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 선택 시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정보 제공



- 자주 이용하는 의뢰·회송 수신기관 등록(즐거찾기) 기능 제공



- 의료영상파일(DICOM)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기존에는 뷰어를 통한 조회 가능)



아직도 병원  
멀리 가시나요...?

이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로  
쉽고 빠르게  
진료 받으세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고모델 이제훈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로 문의 하세요!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항목 >

병원 위치

응급실  
운영여부

의료 질  
평가결과

비급여  
진료비

의료자원  
현황

이용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의료정보 > 지역의료정보



